

대구시티에 몸 싣고 자연의 향연 속으로 떠나보자

관련기사 8면

봄의여신이 미소짓는다.
 잠에서 깨어나 크게 기지개를 켜고 숨고르기를 한다.
 아직 겨울이란 놈이 못내 아쉬워 한숨 쉬고 투정부리는게 고스란히 전해온다
 신선한 봄햇살을 즐긴다.
 꽃나무에 피어오르는 새싹과 입을 열고 활짝 피어난 목련과 매화, 벚꽃, 작은 야생화들이 웃는다.
 마치 자기들 세상이 온것처럼 으 으 댄다.
 겨울이 끝났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어나며 햇볕 아래를 거닐기 좋은 시기다.
 봄바람 맞으며 떠나보자. 대구시티투어를 말이다.
 차가운 겨울바람 때문에 쿨쿨 겨울잠에 빠진 마르가리타.
 마르가리타를 깨울 방법은 봄을 불러올 꽃의 여신을 찾아 대구 구석구석을 둘러보자.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지켜지는 소중한 권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

대구광역시보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3



가수 권미·김희석, 수성구 홍보대사 신규 위촉

대구 수성구는 지난 19일 대구 출신 트로트 가수 권미와 발라드 가수 김희석을 수성구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권미는 성악을 전공

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가수로, 싱글앨범 '말로만 사랑'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현재 TBN 경북·대구 교통신방 DJ 등 여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성구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가수 김희석은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에 출연해 Top9에 들며 감각적인 발라드 음악을 선보였다. 또한 싱글 앨범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를 발표해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조미경 기자

중구청 '우리동네 착한식당' 매월 취약계층에 식사 나눔

국일불갈비, 독거노인 점심 대접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식사 제공

중구청은 성내동에 위치한 국일불갈비 식당(태평로 172)이 지난 19일 성내동 독거 어르신 15명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국일불갈비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윤건식 대표는 올해 3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고 싶다는 성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한 것을 시작으로, 성내 1동 독거 어르신 15명을 초청해 점심 식사(갈비정식)를 대접했다.

식사대접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매월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직접 밀키트 정성스럽게 준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 가정 13가구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윤 대표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큰 보람을 느낀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동장은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일불갈비 윤건식 대표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고 따뜻한 성내동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일불갈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게로 24년째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자원봉사가 꽃피는 오일장' 행사 개최

전통시장서 자원봉사 서비스



(사)군위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군위읍 전통시장에서 '자원봉사가 꽃피는 오일장' 행사를 진행했다.

전통시장을 방문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이날 행사에는 커피향기 사랑의봉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실버아트봉사단, 소바자교육중앙회, 손사랑회 등 자원봉사단체가 참여해 부스 운영을 했다.

또한 카네이션문화봉사단, 아사모, 청아예술단 등 재능나눔 공연 단체도 참여해 노래와 선비춤, 아코디언 연주, 색소폰연주, 하모니카 연주 등 공연도 진행했다.

장근중 자원봉사센터장은 "꽃피는 계절에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많은 주민들이 부스 참여와 공연으로 즐거운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고, 오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단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티웨이항공, '인천~사이판' 프로모션 실시

편도 최저 15만540원부터

티웨이항공은 마리아나관광청과 사이판 여행객을 위한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18일부터 6월 31일까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웹에서 합리적인 운임의 '인천-사이판' 노선 이벤트를 실시한다.

먼저 선착순 한정 이벤트 초특가 운임으로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기준 15만540원부터 판매한다.

항공권 탑승 기간은 이달 1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초특가 운임 기회를 놓쳤더라도 할인 코드 'ILOVESPN'을 입력하면 편도 및 왕복 항공권에 10%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1인 편도 총액 16만2540원부터다. 그 밖에도 사이판 왕복 항공권을 예약하는 모

든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기간 한 번 더 할인이 가능한 5만 원 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이번 프로모션 관련 자세한 스케줄 및 항공권, 제휴사 관련 사항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인천-사이판 노선을 매일 운항하며, 여행객의 편리한 여정 선택을 돕고 있다.

북마리아나제도에 속한 사이판은 비교적 짧은 비행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여행지로, 아름다운 해변과 해양 스포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쇼핑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한국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스마나카하섬 스버드 아일랜드 스그로도 스포버드 아일랜드 외에도 사이판 주변의 티니안과 로타섬 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지도 인기를 끌고 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정신응급 입원병상 추가 운영

자해·타해 위험 환자 응급치료 위기대응 강화 4병상으로 확대

대구시는 지난 18일부터 정신응급 입원병상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병실에서 수성중동병원 2병상을 추가해 정신응급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정신응급 입원병상 지정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응급입원이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 야간·공휴일 진료가 이루어져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의 즉각적인 위기개입과 정신응급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시는 '21년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성중동병원 2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추가 1병상 공모 예정이며 총 4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대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이송·치료 지연을 막고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112, 소방 119,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로 정신과적 위기상황이 접수되면 환자 상태를 평가해 정신응급 입원병상 지정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게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응급입원과 치료를 받게 된다.

정기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정신응급 입원병상 지정의료기관 확보와 함께 정신위기 상황 시 상담, 현장 대응, 이송, 사후관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시민의 정신건강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참꽃갤러리, 상반기 전시지원사업 세 번째 전시

25일부터 김찬숙 작가 개인전

달성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참꽃갤러리에서 김찬숙 작가의 개인전을 오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최한다.

참꽃갤러리에서는 지역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임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시지원사업이 연간 진행되고 있다.

김찬숙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상반기 전시지원사업의 세 번째 전시이다.

김찬숙 작가는 영남대 일반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고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며 작가 고유의 작품세계와 독창성을 정립해 왔다. '흔적(痕跡)'을 주제로 하는 김찬숙 작가의 작품에는 뚜렷한 형태나 구조가 없지만, 삼 속의 고뇌와 회화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이 녹아들어 있다. 참나에 휘발되어 버리는 사소한 기억의 의미와

가치를 붓에 담아 그려내는 김찬숙 작가는 무한의 시간속 속에 쌓여가는 존재로서의 흔적을 표현한 30여 점의 작품을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박병구 달성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인간 내면의 결핍을 면밀히 살피고 독창적인 회화로 표현해내는 김찬숙 작가의 개인전에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찬숙 작가의 개인전 'Traces in memory'는 달성군청 내 참꽃갤러리에서 개최되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조여은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경상북도

단지명	소재지	주요 입주업종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분양문의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3,604천㎡ / 203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항리 일원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강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1,295천㎡ / 257천원/㎡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상주 일반산업단지	상주시 현신동 일원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238천㎡ / 112천원/㎡	상주시청 054-537-7411
경산4 일반산업단지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1,066천㎡ / 293천원/㎡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고야제2 농공단지	구미시 고야읍 오로리 일원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165천㎡ / 284천원/㎡	구미시청 054-480-6137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구미 국가4.환경·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 안동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증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경주하늘마루, 한식 맞아 4월 4일부터 특별 연장 운영

경주시 종합장사공원인 경주하늘마루는 올해 청명 한식을 맞아 개장유골 화장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특별운영 기간으로 지정, 전 직원이 특별 연장 근무에 돌입한다.

평소 개장유골 화장은 6회차 1기, 7회차 4기를 운영했으나 이번 특별운영 기간에는 8회차 3기를 추가로 늘렸다.

경주시민을 위해 특별히 6·7회차 5기를 지역 우선 운영한다.

개장유골화장 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에서 15일전부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화장 당일 개장 신고증명서 원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

문체부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 선정... 국비 30억 확보

충효동 지상 3층, 연면적 4800㎡ 규모 종목 특화형건립...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울림 돕는 화합공간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반다비 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류 증진까지 도모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다.

반다비는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로, 현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명칭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올 1월 공모 신청 후 문체부 현장실사에서 지역의 사업 추진 의지, 도시관리계획 및 지방재정영향평가 등의 사업 준비성, 부지확보, 주민 설문조사, 접근성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모에 선정된 '경주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4800㎡ 규모의 종목 특화형(볼링장)으로 건립된다.

1층은 볼링장, 2층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유아 스포츠실, 문화 공간 등의 다양한 실내 체육 시설, 3층은 다목적체육관 겸 강당으로 운영된다.

사업부지는 올해 연말에 개통 예정인 상구~효현 간 국도와 인접한 충효동 산156-2번지 일원으로, 시내-서부권은 물론 경주역세권에서 자동차로 5~1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시는 6월 경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026년 착공,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업비는 국비 30억원과 지방비 159억원 등 총 189억원이 투입된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지난해 9월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충효국민체육센터와 인접해 있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종합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반다비 체육센터는 경주시 1만 7천 장애인들의 체육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을 돕는 생활밀착형 화합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로당 12곳 선정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경주시치매안심센터가 접근성이 취약한 경로당 12곳을 선정해 '2024년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한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의 치매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인지 중재 프로그램(인지자극, 인지훈련)과 건강증진 교육으로 구성돼 주 1~2회 총 3회기로 3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자는 치매, 경도인지장애 및 고위험군 등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보건진료소 인력 12명을 투입한다.

가뭄·홍수 대비 덕동댐 통합용수관리 지침서 완비

용수관리 원칙과 단계별 상황관리 대응계획수립

경주시가 가뭄, 홍수 등 위기상황을 대비해 '덕동댐 통합용수관리 지침서'를 수립했다.

지침서는 그간 덕동댐의 용수관리와 가뭄관리로서로 상충됨에 따라 용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최적화된 용수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수립됐다. 그동안 경험했던 가뭄이나 홍수기 용수관리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별도 예산소요 없이 상수도과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지침서를 제작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댐 중 2번째로 큰 규모인 경주 덕동댐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관광용수 등 여러 기능의 용수 전용댐이다.

지침서에는 가뭄 등 용수부족 시 용수관리 원칙과 단계별 상황관리 및 대응계획, 홍수기 덕동댐 고수위 시 기상 특보별 예비 방류기준 내용이 수록돼 있다.

하류지역 유관기관(부서) 협조체제 구축사항과 덕동댐 수문 조작 요령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진택은물사업본부장은 "향후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덕동댐 용수관리의 최적화는 물론 민생과 밀접한 주요 시설물의 차수안정성을 확보해 중대사태에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황남동, 깨끗하고 친절한 황리단길 만들어요

경주시 황남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9일 황리단길 일원에서 환경정비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며 깨끗하고 친절한 황리단길 만들기 계몽운동을 했다.

계몽운동은 황남동 직원 및 새마을부녀회원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경주 최고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개최도시

결정에 앞서 깨끗하고 친절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윤태욱 새마을부녀회장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홍보를 위한 가뭄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고, 관광객에게 깨끗한 황리단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은숙 황남동장은 "1일 3만명 이상 방문하는 황리단길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및 개최도시 시민의 준비된 모습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주시, '승덕·승신·승혜전' 3전 춘향대제 봉행

박·석·김씨 등 후손들과 유림 참석 일제해 봉행

경주 승덕전을 비롯한 3전(三殿) 춘향대제가 박·석·김씨 등의 후손과 유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전에 일제히 봉행했다.

박씨의 시조인 박혁거세 왕의 제향을 받드는 승덕전(오름 내) 춘향대제는 초헌관에 이철우 경북지사, 아헌관은 박용용 화남그룹 회장, 종헌관은 박기태(승덕전 참봉)가 각각 헌관직을 수행했으며, 1500여명이 참석했다.

승덕전 제례는 지난해 11월 6일 경상북도 무형유산 제51호로 지정하고 첫 번째 치르는 제례로 이날 무형유산 지정에 따른 식전행사로 신라고취대 축하 퍼레이드, 농악 사물놀이가 진행됐다.

승덕전은 문화유산자료 제254호로 조선 세종 11년(1429년)에 창건됐으나 선조 25년(1592년)에 불탔다.

그 후 여러 번 다시 지어 현재의 모습은 영조 11년(1735년)에 고친 것이다.



신라 4대 석탈해왕의 제향을 받드는 승신전은 초헌관에 석노기(승신전 참봉), 아헌관은 석차량(전 승신전 참봉), 종헌관은 석덕조(보전회 상근이사)가 각각 헌관직을 수행했고 1500여명의 후손이 참석했다.

승신전은 문화유산자료 제255호로 1898년 광무 2년 월상안에 지어졌다가 1980년 석탈해왕릉 옆인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신라 최초의 김씨 왕인 13대 미추왕, 삼국통일

을 이룩한 30대 문무왕, 56대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제향을 받드는 승혜전은 초헌관에 김광택 사회복지재단 아가의집 회장, 아헌관은 김주원 세라비벌프클럽 이사, 종헌관은 김중배(승혜전 참봉)가 각각 헌관직을 수행했고, 1500여명이 참석했다.

승혜전은 문화유산자료 제256호로 처음 월상에 사당을 지어 경순왕의 위패를 모셨으나 임진왜란으로 불타고, 인조5년(1627년)에 동천동에 새로 사당을 지었다가 정조18년(1794년)에 지금의 위치로 옮기고 황남전이라 고쳐 불렀다.

고종 24년(1887년)에 미추왕 위패를 모시고, 이듬해 문무대왕의 위패도 모셨다. 이때 고종황제가 사당을 크게 짓게 하고 승혜전이라 편액을 내렸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대사회의 의식 변화로 제례문화가 감소하는 가운데 신라시대부터 이어진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으로서 향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 / 사진은 경주시제공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오도창 영양군수, 전국 최고 생태관광 중심도시 꿈꾼다

장구메기습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매진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해발550m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지형 습지 472종 다양 희귀한 동식물 서식 생물 다양성 풍부한 자연의 땅...

오도창 영양군수가 전국 최고의 생태관광 중심도시를 꿈꾼다.

영양 자작나무숲 관광지 명품화 사업, 영양 밤하늘 청정예코촌 조성을 넘어 멸종위기종복원 센터 교육관을 건립한다.

장구메기습지(포산)의 습지보호구역 지정까지 더해지면 영양의 밤하늘은 자연 생태계가 뛰어나는 고즈넉한 고을이 된다.

‘전북에 무진장이 있다면 경북에는 BYC가 있다’라는 말이 전해 온다.

전북 지역의 산간벽지 오지 삼삼사가 무주, 진안, 장수라고 한다면 경북에서는 봉화, 영양, 청송이 그기에 버금간다는 말이다.

옛날에야 교통이 불편하고 낙후된 지역의 대명사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영양은 지금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 웰빙 지역의 대명사로 미래를 위한 희망의 땅으로 날로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영양은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기초지자체이다.

육지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동네다.

전국에서 손꼽히는 오지인 만큼 대기 질이 아주 좋다.

영양군의 5면 중 하나인 수비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밤하늘이 어두워서 별자리를 관측하기 좋은 덕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됐다.

20년 전에는 가로등 하나 없는 감천유원지에서 육안으로 은하수 관측이 가능한 굉장한 곳이었다.

아직도 여름철에 수비면에서 빛이 없는 마을 입구, 다리 위, 밭에 누워 밤하늘을 보면 은하수가 잘 보인다.

공기가 깨끗하고 빛 공해가 적어 별이 잘 보인다는 특성 때문인지 수비면에는 “영양 반딧불이 천문대”가 있다.

수비면은 2019년 7월에 개봉한 영화 별의 정원의 배경지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도창 영양군수가 지역 특성을 살려 전국에서 제일가는 생태계 관광도시를 건설하는 장미빛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게 바로 장구메기습지(포산)의 습지보호구역 지정이다.

장구메기습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람사르습지 등록 추진

영양군이 장구메기습지의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한다.

장구메기습지는 영양군 석보면 포산리 해발 550m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지형 습지다.

472종의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삼, 담비 등 6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발견되는 등 우수습지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습지(wetland)는 영구적으로 또는 계절적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다.

육지 특성을 지닌 내륙과 수생태 사이의 일종의 전이 지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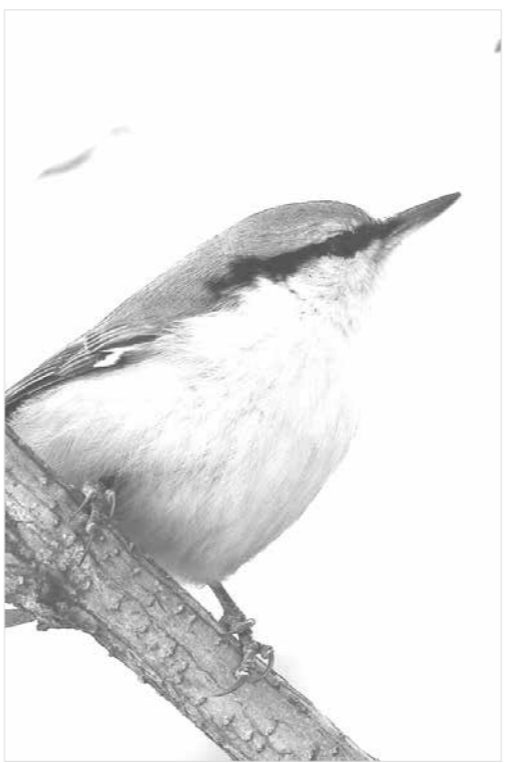
그 중 묵논습지(Abandoned Paddy Wetlands)는 경작이 중단된 논이 인위적 혹은 자연적인 천이과정을 거쳐 습지로 변화되고 있거나 변화된 곳을 통칭한다.

영양 장구메기습지는 석보면 포산리 해발고도 550m에 위치한 묵논습지이다.

현재 관련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으나, 풍부한 사초과 식물 분포, 잘 발달된 소와 흐름 등 독특한 생태계에 구성돼 있다.

국립생태원에서 국가관리습지로 검토 중인 데발굴가능성이 큰 습지이다.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하천생태계 내에



영양군 장구메기 습지

영양 장구메기습지는 지역적으로 그 분포가 희귀한 산지습지이자 묵논습지이며 자연성이 우수하다. 특히 묵논습지로서, 양서류 서식처 역할과 생물다양성증진 효과, 홍수 조절의 기능을 수행한다.

습지 상류부의 우측 골짜기로, 과거 논 경작이 행해졌던 증거인 계단식 논 형태가 남아 있다.

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무리이며(Rosenberg and Resh, 1993), 어류 및 동 식물플랑크톤의 먹이사슬 연결에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분류군이다.

하천 내 퇴적물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거나 독성물질에 의한 퇴적물 오염 등과 같은 서식처의 교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중수와 개체수의 분포 등 군집구조의 차

이가 뚜렷하여 중요한 생물학적 지표로 이용된다(Hynes, 1963; Kehde and Wilhm, 1972).

때문에 군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장구메기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까지 동시에 추진 중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소중한 생태자원인 장구메기습지를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중요하다”며 “영양군과 주민이 협력해 장구메기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알려 생태관광 거

점지역으로 거둬나갈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19일 석보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장구메기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는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환경부, 대구지방법원, 경상북도청, 국립생태원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습지 지정계획과 보전계획, 습지의 우수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도 함께 청취했다.

군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장구메기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람사르습지 등록까지 동시에 추진 중이다.

장구메기습지는 석보면 포산리 해발550m에 자연적으로 조성된 산지형 습지로, 472종의 다양하고 희귀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삼·담비 등 6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발견돼 우수습지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장구메기습지복원공사 완료

지난달 22일 국립생태원이 KT&G와 함께 장구메기습지복원 공사를 완료했다.

영양군 포산리에 위치한 장구메기 습지는 약 3만 8000㎡의 넓은 면적 및 우수한 자연성으로 인해 높은 보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포함한 458여종의 다양한 생물의 서식하고 있다.

최근 장구메기 습지에는 주변 임도로 인한 유입, 지하수위 저하 등으로 습지 본연 기능 상실 및 생물 다양성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2022년 9월 KT&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습지 복원을 추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된 세굴수로복원, 침식사면 정비, 묵논복원 사업은 12월 완료됐다.

해당 지역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환경부와 영양군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 향후에도 국립생태원은 습지 복원지역의 생태적 우수성과 생물다양성 유지 여부를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며 “민간기업과 함께 다양한 생태계 보전 활동을 전개하는 방법을 더욱 활발하게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섭식기능군 및 군집안정성 분석

김광덕 안동대 교수는 영양 장구메기습지 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섭식기능군 및 군집안정성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책에는 2022년 4-9월까지 5개 조사지점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영양 장구메기 습지에 서식 ‘영양 장구메기 습지 내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의 군집구조와 섭식기능군 연구’에 따르면 조사기간 동안 총 5문 7강 14목 50과 65종 4,214.3개체/m2가 조사됐다.

분류군별 출현 종의 경우, 비곤충류는 환형동물문(6종, 7.69%), 편형동물문(1종, 1.54%), 유선형동물문(1종, 1.54%), 연체동물문(1종, 1.54%), 연갑강(1종, 1.54%)이 출현하였으며, 곤충류는 파리목(16종, 24.62%), 잠자리목(10종, 15.38%), 딱정벌레목(7종, 10.77%), 하루살이목(7종, 10.77%), 강도래목(6종, 9.23%), 날도래목(6종, 9.23%), 노린재목(4종, 6.15%)이 출현했다.

1차 조사 시(봄철)에 31종 899.1개체/m2로 가장 적게 출현, 2차 조사 시(여름철)에 40종 2,001.7개체/m2로 가장 많이 출현했다.

지점별 출현 종수를 비교한 결과, 하상기질이 다양하고 여울과 흐름이 발달한 St.5에서 49종으로 가장 많이 출현했다.

하상기질이 진흙으로 단순하고 여울과 흐름이 거의 없는 St.3에서 24종으로 가장 적게 출현했다.

4계절별 군집변동 분석결과, E.P.T. 분류군의 경우, 여름철 감소, 가을철에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GOLD 분류군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우점종과 우점도지수(DI: Dominance Index)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깔따구류(W)(Chironomus spp.(white type))와 실지렁이(Limnodrilus gotoi)가 우점했다.

조사시기별 우점도의 경우, 1차 평균 0.714, 2차 평균 0.733, 3차 평균 0.622로 조사됐다.

군집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St.3의 평균 우점도지수가 0.874로 가장 높았다.

평균 다양도지수(H: Diversity Index), 평균 종풍부도지수(R: Richness Index), 평균 균등도지수(J: Evenness Index)가 각각 1.205, 1.097, 0.425로 가장 낮았다.

반면, St.5의 평균 우점도 지수가 0.537로 가장 낮았다.

평균 다양도지수, 평균 종풍부도지수, 평균 균등도지수가 각각 2.787, 1.961, 0.807로 가장 높았다.

섭식기능군(Functional Feeding group: FFG)의 경우, 주위먹는무리(Gathering-collector: GC)가 12종, 2,823.1개체/m2, 육식성 포식자(Predator: P)가 30종, 839.9개체/m2로 높은 출현율을 보였다.

반면, 걸러먹는무리(Filtering-collector: FC)의 경우, 2종, 59.2개체/m2가 출현, 낮은 종수와 개체수 출현율을 보였다.

군집안정성 분석결과, 상대적 저항력과 회복력이 모두 높은 특성군 I과 상대적 회복력과 상대적 저항력이 모두 낮은 특성군 III에 속하는 종들이 다수 출현했다.

타묵논습지와 비교분석 결과, 심곡동습지(S)와 유사도가 0.366으로 가장 낮았다.

O.H.C. 분류군과 GOLD 분류군이 출현 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통점을 보였지만, 장구메기습지(St.3)에서 강도래목의 종 점유율(8.3%)이 더 높은 차이점을 보였다.

특이종 출현 분석결과, 국외반출승인대상 20종, 국가적색목록 관심대상(LC) 26종, 국가적색목록 준위협(NT) 1종, 분포특이종 5종, 고유종 1종이 출현했다.

우리물알발꿈개(Platambus koreanus)의 경우, 주로 충남·경남에만 분포(국립생물자원관, 2017)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조사기간 St.2, St.4, St.5에서 출현했다.

권운홍 기자



앞산해넘이전망대



고산골공룡공원



메타세콰이어길



동춘유원지



팔공산



대구컨벤션센터

봄 바람...대구 여행 시작 그게 바로 시티투어다

단단한 얼음을 사르르 녹이고 겨울눈이 푹푹 숨겨둔 꽃봉오리 고개를 들게 한다 혹은 밀어내고 고요히 찾아오는 봄은 분명 강하다 앞산해넘이전망대 메타세콰이어길 일상 속 숨이 필요할때 찾고 싶은 예술공간인 대구미술관 금호강변에 위치한 동춘유원지가 지 둘러보자

겨우내 움추렸던 몸을 펴고 기지개를 켜다. 봄치녀 치맛자락 휘날리듯 피어나는 치녀치마잎이 평바닥에 퍼퍼짐하게 퍼져 있다. 치녀들의 치맛자락을 연상시킨다 해서 이름 붙여진 치녀치마다. 백합과 치녀치마속 속근 성 여러해살이풀이다. 봄은 세상을 순하게 만드는 계절이다. 단단한 얼음을 사르르 녹이고, 겨울눈이 푹푹 숨겨둔 꽃봉오리의 고개를 들게 한다. 혹은 밀어내고 고요히 찾아오는 봄은 분명 강하다.

여행하기 좋은 계절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다. 상쾌한 바람을 가르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느껴보자.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겨우내 움추렸던 생물을 잠에서 깨어났다. 따스한 봄 날씨에 여기저기서 꽃망울 터지는 소리가 들려온다. "봄을 찾아 어디로 떠날까" 한 겨울 함께 했던 외투를 벗어던지자. 대구시내 아파트 담장 옆 매화도 활짝 피어



났다. 다양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려 지나 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그래서 봄에 피는 꽃이 최고 예쁘다. 살갗을 부드럽게 파고드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찾아온 봄날. 춘삼월의 풍경을 마음껏 느껴보자. 이 모습, 이 공기, 평생 함께하고 싶다.

대구시티투어 노선 개편
대구시와 대구관광협회가 손잡고 대구시티투어 노선을 개편, 22일부터 본격 운행한다. 대구시티투어는 기존의 핵심 코스는 유지한다. 군위군 편입으로 더 넓어질 대구다.

레트로와 K-힐링 관광 트렌드 등을 반영, 대구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노선을 개편했다. 도심 순환노선은 기존 노선 승차 수요와 선호 관광지 등을 반영해 4개 정류장을 폐지했다. 4개 지점을 추가해 도심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과 순환 시간 조정을 통한 관광 대중교통의 역할을 강화했다. 신규로 지정된 주요 관광지는 대구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짜여졌다. 그곳이 바로 △앞산해넘이전망대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고산골 공룡공원-메타세콰이어길 △일상 속 숨이 필요할 때 찾고 싶은 예술공간인 대구미술관 △마지막으로 금호강변에 위치한 가족·연인들이 나들이하기 좋은 동

춘유원지이다.

변경된 도심 순환노선 17회 운영
변경된 도심 순환노선은 1일 7회 운영된다. 출발시간은 기존 9시에서 30분 늦춰진 9시 30분이다.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탑승이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성인 1만원, 중고생 8000원, 어린이·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는 6000원이다. 대구시티투어 노선의 가장 큰 변화는 테마노선의 확대와 다양화이다. 먼저 지난해 군위군 편입과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으로 진행된 시범투어 노선의 호응도를 바탕으로 군위군, 팔공산 노선을 확정했다. 낙동강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낙동강 노선과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대구수목원, 대명유수지를 담은 사시사철 노선도 운영된다. 대구지역의 대표 5일장인 현풍백년도깨비시장(5, 10일)과 군위전통시장(3, 8일)을 연계한 로컬 전통시장 노선을 신설했다. 도심의 상설 시장과는 다르게 계절마다 달라지는 살거리와 전통시장만의 먹거리도 체험할 수 있다.

특별노선 운행
특별노선으로 봄·가을에 시즌 투어인 산으로(팔공산), 강으로(금호강) 노선을 운영한다. 대구의 대표 축제인 판타지대구페스타, 치맥페스티벌을 연계한 노선도 운영한다. 개편된 대구시티투어 테마노선은 1일 1회, 15인 이상 모객 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기본 성인 1만원, 중고생 8000원, 경로·어린이·장애인은 6000원이다. 군위군 2개 코스는 원거리인 점을 반영, 성인 1만2000원, 중고생 1만원, 경로·어린이·장애인 8000원으로 정했다. 운영코스 및 이용요금, 할인혜택 등 상세 내용은 대구시티투어 누리집(www.daegucitytour.com) 또는 대구관광협회(053-627-8900, 8906)로 확인 문의가 가능하다. 대구관광협회는 이번 개편 노선 홍보를 위해 22-31일까지 도심 순환노선 50% 할인, 전통시장투어 탑승객에게 장바구니 제공 등 다양한 행사를 한다. 조성선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의 매력은 유서 깊은 문화와 역사, 자연을 만날 수 있는 것과 함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점이다. 새롭게 시작되는 대구시티투어와 함께 대구를 경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낙동강



대구수목원



대명유수지



현풍백년도깨비시장